“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

< 마태복음 6장 33절 >

- 여름공동체생활을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5일(목) 6시 30분부터 저녁공동식사로 시작합니다.
  28일(일) 예배 중에 성찬식과 물질의 나눔 시간이 있습니다.
- 푸른꿈사랑방 공동체생활이 24일(수)~25일(목) 1박 2일간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 설립 40주년 기념으로 사랑방공동체 찬양집이 이번 주간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김성흠 청년 (감사)
이충환 · 최연우 집사 가정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이종옥 집사 (엄마 기일)

신협(헌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1 - 29 호
2024년 7월 21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랑방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잔칫날, 잔칫상 앞에서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칫상을 차려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 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시23:5>

사랑방공동체의 여름공동체생활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잔칫날"입니다.

잔칫날이라 하여 여름공동체생활이 단순히 먹고 즐기는 자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에게 마련해주신 참으로 복된,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런 잔치 자리라는 뜻입니다.

이 시대는 편리를 추구하고 개인을 지극히 귀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하고, 불편하고 번거롭기보다는 편리하고 간편하게 모든 것을 처리하려는 풍토입니다. 함께하기 보다는 각자의 영역과 자리를 확보하고 결코 그 선을 넘게 해주지 않는 것이 요즘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불편하고 번거로우며, 자신의 공간을 기꺼이 내어주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를 실천하려는 작은 노력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 이하부터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규범은 이 시대와는 너무나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로 시작되는 말씀은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먼저 하기. 열심을 내어 부지런히 일하고, 기도를 꾸준히 할 것을 권하고 계십니다. 특히, 서로 한 마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라는 말씀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바로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라는 말씀으로 귀결됩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름공동체생활은 이 시대의 풍조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써 선한 것은 굳게 잡고 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것을 연습하며,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함께 어울려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기를 애써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이 악한세상에게 선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습니다. 함께 산다는 것이 결코 어렵지만은 않다는 것을, 잔칫날처럼 기쁘고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잔칫상에 가장 좋은 곳에 모시고 우리는 신나는 춤과 노래로 주님과 함께 잔치를 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잠시나마 경험해 볼 수 있는 너무나도 귀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욱 사랑하는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기었노라 자랑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풍성하게 차려진 잔칫상 앞에서 기꺼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잔칫날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디아코니아사랑방 장영미 전도사

한주간의 말씀

" 주님은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에 내릴 비를 준비하시어,
산에 풀이 돋게 하시며, "
< 시 편 147편 8절 말씀 >

〈 수요기도회 〉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292장 406장 420장
기도 :
성경 : 아모스 3장
제목 :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언하시다

1. 내용: 이스라엘의 악행이 넘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셨다.(What)
<문단구분>
1~2절 이스라엘 자손아 들어라
3~8절 누가 예언치 않을 수 있겠느냐?
9~15절 하나님의 선고

2. 의미: 이스라엘의 우상숭배가 사회적인 타락까지 이르게 하였다.(Why)
1) 아스돗과 이집트가 그 증인이 될 것이다.
2)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말할 수 밖에 없다.
3) 제단의 뿔이 꺾이는 것은 우상 숭배가 그치게 될 것을 의미한다.

3. 적용: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자 (How)
1)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2) 날마다 성서일기를 하자.
3)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올해는 저에게 생활공동체로 지낸지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아직 배울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은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마음으로 들어왔었는데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 훅 지나갔습니다. 실감이 나지는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봤던 교회 어른들이 제가 올해 35살이라고 하면 깜짝깜짝 놀라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10년째 같이 지낸 분들이 항상 어른들이셔서 제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아직까지 예뻐해 주셔서 아직도 어린 애 마냥 천진난만하게 삽니다.

사랑방공동체에서 지낸 10년이란 시간 속에서 참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사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공동체도 변하고, 저도 변했습니다. 변한 것 중 가장 좋은 것과 힘든 것을 고르라면 둘 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같습니다. 한 자리에서 살면 안정적으로 지내서 좋지만 다른 면에서 모든 것에 너무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공동체에서 지내서 즐거웠던 것들, 감사했던 것들이 참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서서히 참 당연하게 여겨지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맡은 일이 많아 몸과 마음이 지칠 때 아무 생각 안하고 쉴 수 있는 것들을 찾았습니다. 예능, 드라마, 게임을 하면서 쉬는데 충분히 회복되지 않고, 지쳐가며 꽤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몇 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죄로 벌을 받는 성경 말씀만 나오면 내 말씀 같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멀어져서 오는 현상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요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침기도에 나가며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고, 사랑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모두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모든 것들을 감사합니다.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서야한 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모든 걸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즐겁게 같이 살아갑시다.

미리내사랑방 이어람 집사

주일공동예배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오전11시 설교자 : 정재훈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초청의 말씀	요한복음 1 : 1-4	인도자
*예배의 찬송	21	다함께
*기원의 기도		인도자
*기원찬송	영광 영광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참회의 기도		
*용서의 말씀	요한일서 1 : 9	인도자
*신앙고백		다함께
고백의 찬송	183	다함께
공동기도		다함께
목회기도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성경낭독	시 편 147 : 1-11	설교자
성가대 찬양	560	비움사랑방
설 교	"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의탁의 기도		설교자
응답의 찬송	309	다함께
*봉헌기도		인도자
*영광찬송	438(1)	다함께
*위탁의 말씀		설교자
*강복기도		설교자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허철영 강춘자 / 봉헌위원 : 윤호중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공동기도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단단하게 굳어진 저희를 부드럽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빚어주십시오. 아멘.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세우시는 하나님.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으십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십니다. 이 땅의 교회 역시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깨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다시 싸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별들의 수효를 헤아리시고, 하나하나 이름 붙이신다고 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름 붙이면 관계가 형성됩니다. 아무리 많고 멀리 흩어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 자신의 교만을 깨닫게 됩니다.

비를 준비하시니. 하나님은 은혜의 단비를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굳어진 마음은 비를 담지 못하고 흘려보냅니다. 깨어짐은 부드러워지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부서진 흙 위에 단비가 내리면 새 생명이 돋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채영학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8월에 태어난 지음이의 생일잔치를 미리 당겨서 했습니다. 꾸러기들과 선생님들이 정성 가득 담아 만든 생일 카드를 읽어주고 앞 다투어 안아주고 업어주고 꽃가마도 태워주고 목마와 카페트 썰매까지 몸으로도 열심히 선물을 주었습니다. 생일잔치 내내 눈은 초승달이 되고 두 볼은 발그레 붉어져 하늘을 날아갈 듯 기분이 좋은 지음이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생일잔치였습니다.

지난 주일과 화요일에는 학부모면담시간을 가졌습니다. 꾸러기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각자 독특한 특징은 어떤 점인지 혹시 도울 부분은 없는지 이야기를 나누며 꾸러기들을 더 이해하고 사랑의 마음이 깊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을 내어 면담에 참석해주신 부모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다시 전합니다.

폭우로 수요일은 휴업을 하고 목요일에 학기를 마무리 했습니다. 사물함을 비우고 자신의 의자를 닦고 서로에게 잘 지내라 격려의 인사를 했습니다. 방학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다가 8월 22일 개학날 반가운 얼굴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 교사 : 전향옥 >

어린이학교

우와~ 방학이다!!

어린이학교가 드디어 여름 방학을 시작했습니다. 방학을 앞 둔 지난 화요일에는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서울 시내로 나가 용산도서관에 가서 책도 읽고 도서관 식당에서 점심식사도 했습니다. 오후에는 명보아트홀에서 하는 'K-KICK' 풍물과 태권도 시범, 부채춤과 난타 공연을 보고 함께 환호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방학을 하는 날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학교에서 만날 줄 알았지만 등교시간 쏟아지는 비 때문에 여러 곳에서 등교하는 어린이들의 안정상 이유로 갑작스럽게 휴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인 목요일, 예정에 없던 등교날이라 이미 예정되어 있던 방학일정으로 등교하지 못한 어린이들도 있었지만 많은 어린이들이 다시 모여 한 학기를 정리하고 기대하던 방학과제도 받고, 7월의 생일을 맞은 친구들을 축하하고 한 학기동안 수고한 서로에게 인사하며 방학을 맞았습니다. 한 학기의 마지막주간을 보내며 역시 사람의 계획은 완전하지 않으며 어린이학교가 한 학기동안 잘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 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즐거운 시간 보내고 다시 만나게 될 어린이들을 기대하며 한 학기동안 함께 키워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교사 : 정다운 >

멋쟁이학교

비가 많이 왔던 주간입니다. 날씨는 후덥지근했지만, 그 가운데 부모님 기말 면담도 틈틈이 이루어졌습니다. 멋쟁이들도 각양각색으로 방학기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행을 가기도 하고, 따로 공부를 하기도 하고, 운동을 하거나, 기타 자신이 세웠던 계획과 씨름하는 멋쟁이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물론 침대와 한 몸이 된 경우를 듣기도 합니다. 월요일에는 5학년이 학교에 방문하여 유럽여행 준비를 집중적으로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밤늦게까지 머리를 맞대며 여행을 준비하면서도, 간간히 재밌게 놀기도 하면서 즐거운 한 때들도 잊지 않았답니다.

방학 때에 얼마나 잘 놀고, 잘 쉬고, 잘 쌓아올렸는지가 다음 학기 학교생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루하루를 귀중히 여기며 보람차게 보내길 바랍니다.

< 교사 : 이어진 >

우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요

올해 장맛비가 무섭습니다. 자고나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피해 소식도 무섭습니다. 앞으로 해마다 강도가 점점 높아진다고 하니 우리가 무심코 한 행동의 결과가 우리 미래의 자녀들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준다고 생각하면 미안함은 말로는 절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

올해 사랑방공동체가 40살이 되는 해였지요. 그동안 스쳐갔던 수많은 사람들과 추억들이 떠오릅니다. 그중에 84년 창립 첫 해에 화진포로 갔었던 여름공동체생활이 생각납니다. 허술하고 좁은 숙소에서 그냥 서로 눈만 마주쳐도 좋았고, 가는 길은 잘 모르지만 특별한 소명의 길로 갈 것이라는 기대에 저절로 마음이 부자가 되어 행복해하던 때가 그리워지네요. 40년 동안 우리의 생각대로 잘 왔나요? 저는 사랑방도 그렇고 제 개인적인 삶도 피하고 싶었던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 제 삶중 에서 하나를 뽑으라면 89년도 보람이를 하나님나라에 보낸 일입니다. 사실 해마다 이때가 되면 잊지 않고 제 몸이 먼저 싸인을 보냅니다. 바로 밖으로 내색할 수 없는 아들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위로를 받는 때도 이때입니다. 바로 여름공동체생활을 통해 함께 어울리다보면 그리움이 희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동안 수없이 하나님께 따지듯이 질문했던 물음이지만 이젠 확실히 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 또 사랑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하실리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어느 날 순간 제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보람이묘에 일 년에 몇 번 꼭 가는 날이 있습니다. 생일, 헤어진 날, 또 학교 생일에 갑니다. 보통 때는 보고만 오지만 학교 생일 때는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들, 아무도 몰라줘도 엄마는 확실히 알아. 네가 사랑방학교를 시작하도록 힘을 줘서 고맙다” 92년도에 꾸러기를 제가 시작할 수 있었던 계기가 보람이를 보내고 힘들어하는 제게 친정엄마가 무심코 하신 말씀 “넌 교회 사모가 꼭 네가 낳아야만 자식이니? 교회 아이들을 네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정말 자식처럼 사랑하면서 슬픔도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네 모든 삶은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꼭 있답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이월영 사모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장영미 전도사
찬 송 : 288장, 325장, 210장
성 경 : 로마서 12:9-21
말 씀 :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1)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종전을 위해서
   2) 긴 시간동안 깊어져 있는 땅을 위한 민족 간의 갈등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장마로 인한 피해>
   1) 농민의 피해와 더불어 농촌교회들의 피해가 잘 복구되고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2)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인 만큼 환경을 위한 작은 노력이라도 할 수 있도록.
3. 지역사회와 사랑방공동체를 위한 기도
   1) 여름공동체생활을 위해서
   2) 학기말 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 생활공동체 소식 >

엄청난 비로 인해 꾸러기와 어린이들의 등교일정이 바뀌면서 예정되어 있던 대청소도 하지 못하여 각 기관에서 사용하는 곳을 청소하기로 했습니다. 마당에 배수로 주변의 흙이 다 쓸려갈 정도로 비가 많이 내렸지만 농작물이나 다른 곳에는 피해가 없어 감사했습니다.

손님맞이를 위해 숙소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집기도 옮기고 식기류도 마련하면서 다시한번 손님을 대접하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여름공동체생활을 준비하면서 함께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여름공동체생활이기를 기도합니다.

< 장영미 전도사 >